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즉시
문의	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
	이재현 전화: 880-2985, 이메일: ljh7623@snu.ac.kr

배포일: 2023.9.14.(목)

개발도상국 출신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, 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견학 및 K리그1 경기 관람

-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(단장: 강준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) 드림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 재학생 26명(개도국 학생:22명, 한국학생:4명)은 스포츠현장 견학의 일환으로 9월 17일(일)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시설 견학 및 2023 K리그1 FC서울의 경기를 관람한다.
- 드림투게더마스터 프로그램은 글로벌 스포츠 행정 전반을 배울 수 있는 교과과정과 이와 연계하여 스포츠 산업 현장, 저명인사 특강, 한국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된 비교과과정으로 운영된다. 금번 현장 견학은 가을학기에 입학하여 이제 막 한국에서의 학업과 생활을 시작한 DTM 11기 학생의 첫 번째 비교과 활동이다.
- 한국에서의 석사과정을 선택한 DTM 학생들은 한국의 스포츠 행정 및 산업 전반의 발전 경험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. 이러한 점에서 2002 FIFA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장소인 서울월드컵경기장 견학은 학생들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. 또한 앞으로 진행될 교과과정 중 이벤트 유산관리, 스포츠 시설

및 운영, 마케팅 등의 수업에서 견학을 통해 경험한 것을 학문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연구 사례 등으로 활용해봄으로써 학생들은 실무와 이론을 함께 겸비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.

□ 매년 서울월드컵경기장 견학은 재학생들에게 인기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손꼽힌다. 왜냐하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선수 대기실, 워밍업실 등을 직접 방문하고, 관계자들과의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. 특히, 캄보디아 출신 국제심판 중 최초로 월드컵 예선 경기를 관장한 DTM 11기 학생 비치카 투이(Vichhika Tuy)는 “2015년 당시 심판으로 한국을 방문한 후, 2023년 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 학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매우 기쁘다. 한국에 있는 동안 K리그에 대해 경험하고, 공부하여 우리나라의 축구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에 이번 견학이 더욱 기대된다” 고 언급했다.

□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 강준호 단장은 “다양한 스포츠 종목, 분야, 직업군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현장을 경험하는 DTM의 11번째 신입생들이 이제 막 학업의 여정을 시작했다.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,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 라고 언급했다.

□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이 운영 중인 드림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는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를 양성하고, 글로벌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스포츠 개발협력 사업 중 하나다. 매년 아시아, 아프리카, 오세아니아, 동유럽, 중남미 국가의 차세대 스포츠행정가 20여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과정에서 교육을 받는다.